WEBVTT

00:00:12.003 --> 00:00:14.212
안녕하세요?
장동준 샘입니다.

00:00:14.414 --> 00:00:17.492
이번 시간 생강 국어
문법 10강이고요.

00:00:17.592 --> 00:00:20.129
표준 발음법 들어가보도록 합니다.

00:00:20.229 --> 00:00:25.634
표준 발음법은 교재 155쪽
잠깐 보도록 할게요.

00:00:25.734 --> 00:00:27.623
이런 말이 있습니다.

00:00:27.723 --> 00:00:32.180
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
혼동되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

00:00:32.280 --> 00:00:36.133
동일한 단어를 사람마다 각각
다르게 발음을 하게 되면

00:00:36.233 --> 00:00:38.377
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.

00:00:38.477 --> 00:00:42.375
그래서 표준 발음법은 바로 이런
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.

00:00:42.475 --> 00:00:43.763
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.

00:00:43.863 --> 00:00:47.348
그래서 우리가 발음을
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

00:00:47.448 --> 00:00:49.666
의사소통할 때 혼란이
생길 수 있잖아요?

00:00:49.766 --> 00:00:52.034
그래서 올바른 발음,

00:00:52.134 --> 00:00:54.559
물론 표준 발음법도 계속 변합니다.

00:00:54.659 --> 00:00:56.061
제가 지난 번에 이야기했었죠?

00:00:56.161 --> 00:01:00.412
김밥이 맞았지만 김빱으로 발음하는
것도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.

00:01:00.512 --> 00:01:05.535

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표준
발음법의 주요 규정을 통해서

00:01:05.635 --> 00:01:11.189
일상 생활에서 정확한 발음을
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

00:01:11.289 --> 00:01:15.573
시험문제도 잘 풀 수
있도록 해드릴게요.

00:01:15.673 --> 00:01:21.633
일단 제1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1:21.733 --> 00:01:23.471
정말 중요한 부분이죠.

00:01:23.571 --> 00:01:26.154
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.

00:01:26.254 --> 00:01:30.585
그리고 국어의 전통성과
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00:01:30.685 --> 00:01:32.963
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.

00:01:33.063 --> 00:01:36.377
지금 156쪽에
두 번째 컷을 보면

00:01:36.477 --> 00:01:39.437
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
실제 발음을 따르되

00:01:39.537 --> 00:01:42.322
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
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00:01:42.422 --> 00:01:48.696
이것은 표준어 발음법에 대한 대원칙을
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.

00:01:48.796 --> 00:01:52.619
그래서 이렇게 이해를
하면 될 것 같습니다.

00:01:52.719 --> 00:01:57.590
어디를 보냐면, 여덟
번째 컷 보세요.

00:01:57.690 --> 00:02:02.852
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값에 대하여
갑, 갑만, 갑씨, 갑쓸, 갑쎄

00:02:02.952 --> 00:02:06.408
서울말에서 발음이 되는데 바로
이러한 실제 발음에 따라서

00:02:06.508 --> 00:02:08.269
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겁니다.

00:02:08.369 --> 00:02:12.278
그런데 현대 서울말에서조차
실제 발음에서는

00:02:12.378 --> 00:02:14.649
여러 형태로 발음되는
경우가 있다고 했죠.

00:02:14.749 --> 00:02:17.722
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국어의
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

00:02:17.822 --> 00:02:20.890
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조건을
이어서 제시했습니다.

00:02:20.990 --> 00:02:23.591
예를 들어서, 계속 예가 나오죠?

00:02:23.691 --> 00:02:26.283
서울에 어떤 젊은이나 어린이는
소리의 길이를 구별하지 않고

00:02:26.383 --> 00:02:29.046
밤과 밤을 모두 짧게
발음하기도 하는데

00:02:29.146 --> 00:02:31.959
대부분의 장년층 이상에서는
소리 길이를 인식하면서

00:02:32.059 --> 00:02:34.087
구별하여 발음한다는 이야기가 있죠.

00:02:34.187 --> 00:02:37.539
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소리 높이나
길이를 구별해온 전통이 있는데

00:02:37.639 --> 00:02:40.732
그래서 표준 발음법에
바로 소리의 길이에 대한

00:02:40.832 --> 00:02:42.555
규정이 포함돼있는 것입니다.

00:02:42.655 --> 00:02:46.965
이런 것들이 바로 국어의 전통성을
고려해서 표준 발음법을 정한 것이고

00:02:47.065 --> 00:02:51.379
그다음에 합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.

00:02:51.479 --> 00:02:56.312
전통성과 합리성이라는
표현은 실제 시험에서

00:02:56.412 --> 00:03:00.583
바로 언급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
이해는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.

00:03:00.683 --> 00:03:04.450
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것은
한글 맞춤법의 규정에서

00:03:04.550 --> 00:03:06.879
어법에 맞춘다는 것과 가까운데

00:03:06.979 --> 00:03:10.240
말 그대로 국어의 규칙에 따라서

00:03:10.340 --> 00:03:14.212
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
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3:14.312 --> 00:03:16.779
그래서 거기 보면 표준어의
실제 발음을 다루되

00:03:16.879 --> 00:03:20.613
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
발음을 정할 때는

00:03:20.713 --> 00:03:22.282
어려움이 있는 경우도
있다고 했어요.

00:03:22.382 --> 00:03:25.956
예컨대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이죠.

00:03:29.064 --> 00:03:31.746
우리가 이 예시를 볼
필요가 있어요.

00:03:31.846 --> 00:03:35.949
맛있다, 저도 지금
마싣따라고 했지만

00:03:36.049 --> 00:03:38.810
실제 발음에서는 마싣따가
많이 쓰입니다.

00:03:38.910 --> 00:03:45.058
그런데 원래 어법대로 하자면
받침 ㅅ을 ㄷ으로 발음하는

00:03:45.158 --> 00:03:48.764
마딛따가 오히려 합리성을
지닌 발음이다.

00:03:48.864 --> 00:03:59.678
그래서 마싣따와 마딛따 2개가
다 쓰인단 말이에요.

00:03:59.778 --> 00:04:06.319
원래 받침 ㅅ을 ㄷ으로 발음하는
마딛따가 합리성을 지닌 발음이다.

00:04:06.419 --> 00:04:13.444
그래서 이거를 합리성에
맞는 발음이라고 보는데

00:04:13.544 --> 00:04:16.093
실제로 사람들이 마신따를
많이 사용하니까

00:04:16.193 --> 00:04:22.561
전통성도 고려해서,

00:04:22.661 --> 00:04:26.688
마딛따를 원칙적으로
표준 발음으로 정하되

00:04:26.788 --> 00:04:32.453
전통성도 고려해서 마신따도
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고 있다.

00:04:32.553 --> 00:04:35.265
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

00:04:35.365 --> 00:04:42.866
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표준
발음법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4:42.966 --> 00:04:46.764
그러면 제4항부터 보도록 할게요.

00:04:46.864 --> 00:04:49.332
주요 규정 중심으로 쭉 갈 텐데,

00:04:49.432 --> 00:04:52.831
제4항은 단모음의 발음에
대한 규정인데요.

00:04:52.931 --> 00:04:57.941
눈여겨볼 점은 ㅢ, ㅟ는
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하나

00:04:58.041 --> 00:05:00.996
이중 모음으로 발음함도 허용하는
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.

00:05:01.096 --> 00:05:03.128
이게 무슨 소리인가?

00:05:03.228 --> 00:05:08.850
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
볼까요?

00:05:08.950 --> 00:05:13.262
거기 보면 157쪽에
마지막 컷 보세요.

00:05:13.362 --> 00:05:16.150
특히 ㅢ는 이중
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

00:05:16.250 --> 00:05:19.225
문자와는 달리 ㅔ와
발음이 비슷하게 된다.

00:05:19.325 --> 00:05:21.731
그래서 거기 보면,

00:05:21.831 --> 00:05:24.570
금괴라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.

00:05:24.670 --> 00:05:26.623
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.

00:05:26.723 --> 00:05:28.739
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.

00:05:28.839 --> 00:05:31.148
왜냐하면 이게 헷갈릴
수밖에 없으니까요.

00:05:31.248 --> 00:05:33.494
그래서 ㅚ니까 단모음이죠.

00:05:33.594 --> 00:05:37.532
그런데 이런 경우에는
단모음으로 발음해도 되고

00:05:37.632 --> 00:05:40.110
이중 모음으로 발음해도 됩니다.

00:05:40.210 --> 00:05:41.665
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?

00:05:41.765 --> 00:05:43.960
그렇다고 해서 이 ㅚ가 이중
모음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

00:05:44.060 --> 00:05:47.212
발음은 단모음으로 해도 되고
이중 모음으로 해도 된다.

00:05:47.312 --> 00:05:49.487
발음만큼은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.

00:05:49.587 --> 00:05:51.179
그래서 이거를 어떻게
쓰냐면 이렇게 씁니다.

00:05:51.279 --> 00:05:58.394
말 그대로 그냥 금괴,
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.

00:05:58.494 --> 00:06:10.170
그다음에 금궤, 이렇게
발음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.

00:06:10.270 --> 00:06:15.832
둘 다 적절하다는 것입니다.

00:06:15.932 --> 00:06:18.639
그래서 이게 원칙이고 이게 허용.

00:06:18.739 --> 00:06:21.976
둘 다 맞다고 이해하면 돼요.

00:06:22.076 --> 00:06:25.284
그다음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6:25.384 --> 00:06:28.393
5항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,

00:06:28.493 --> 00:06:31.592
제5항은 이중 모음의 발음에
대한 규정인데요.

00:06:31.692 --> 00:06:34.360
방금은 우리가 단모음에
관한 규정이었죠.

00:06:34.460 --> 00:06:37.400
이번에는 이중 모음 발음에
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.

00:06:37.500 --> 00:06:41.547
보니까 다만이 4개가 있는데

00:06:41.647 --> 00:06:43.852
이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.

00:06:43.952 --> 00:06:47.800
다만 1부터 점검을
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6:47.900 --> 00:06:51.295
다만 1 같은 경우는
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

00:06:51.395 --> 00:06:54.839
지어, 찌어, 치어는 져, 쪄, 쳐로
발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

00:06:54.939 --> 00:06:59.022
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

00:06:59.122 --> 00:07:08.159
가지어가 가져로 줄잖아요.

00:07:08.259 --> 00:07:16.188
그다음에 찌어가 쪄로.

00:07:16.288 --> 00:07:21.399
그다음에 다치어가 다쳐로.

00:07:25.465 --> 00:07:31.474
져, 쪄, 쳐가 있잖아요.

00:07:31.574 --> 00:07:35.710
그런데 이 이중 모음을 제대로 발음하려고
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7:35.810 --> 00:07:40.401
지어, 찌어, 치어 이렇게 할
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한다?

00:07:40.501 --> 00:07:43.005
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.

00:07:43.105 --> 00:07:47.963

지어, 찌어, 치어는
져, 쪄, 쳐로 단순하게 발음한다.

00:07:48.063 --> 00:07:52.259
그래서 가저, 이렇게 발음하는
게 맞다는 것이고요.

00:07:52.359 --> 00:07:56.120
그다음에 이거는 쩌가
맞다는 것이고요.

00:07:56.220 --> 00:08:00.536
이거는 다처가 맞다는 것입니다.

00:08:00.636 --> 00:08:03.631
이렇게 쓰는 게 맞다, 이해되시죠?

00:08:03.731 --> 00:08:08.760
그래서 ㅈ, ㅊ 다음에 ㅕ
같은 이중 모음이 발음되는 경우가

00:08:08.860 --> 00:08:13.894
없음을 규정하는 것이다.
아시겠죠?

00:08:13.994 --> 00:08:15.792
이게 다만 1의 내용이고요.

00:08:15.892 --> 00:08:17.380
그다음에 다만 2를 보면,

00:08:17.480 --> 00:08:21.091
예, 례 이외의 경우에는 에로도
발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

00:08:21.191 --> 00:08:25.247
그러니까 예는 원래 발음대로
예로 발음해도 되는데

00:08:25.347 --> 00:08:28.277
예, 례 이외의 경우에는
에로도 발음하니까요.

00:08:28.377 --> 00:08:31.660
실제 발음까지 고려해서 에로
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.

00:08:31.760 --> 00:08:32.967
무슨 이야기야?

00:08:33.067 --> 00:08:37.850
예를 들어서 계집,
이런 표현이 있으면

00:08:37.950 --> 00:08:40.266
이거를 어떻게 발음합니까?

00:08:40.366 --> 00:08:44.925
말 그대로 예를 살려서
이렇게 발음해도 돼요.

00:08:45.025 --> 00:08:47.694
중간에 장음 표시가
들어가니까 표시해줄게요.

00:08:47.794 --> 00:08:49.965
계집, 이렇게 발음해도 맞고요.

00:08:50.065 --> 00:08:59.838
게로 발음해도 된다는
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

00:08:59.938 --> 00:09:02.546
이게 원칙이지만 이것을
허용해주는 거죠.

00:09:02.646 --> 00:09:06.502
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.

00:09:06.602 --> 00:09:08.465
혜택도 나와 있죠?

00:09:08.565 --> 00:09:12.270
혜택도 되고 혜택으로 발음해도
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9:12.370 --> 00:09:16.375
그다음에 다만 3에서는 자음을
첫소리로 가지고 있는

00:09:16.475 --> 00:09:17.761
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.

00:09:17.861 --> 00:09:20.624
대부분 친구들이 다만 3과
다만 4를 많이 어려워합니다.

00:09:20.724 --> 00:09:25.499
다만 3, 예를 들어서 무늬
같은 경우가 예가 되겠어요.

00:09:25.599 --> 00:09:29.577
무늬, 희망 이런 것들이죠.

00:09:29.677 --> 00:09:31.956
무늬도 어떻게 발음합니까?

00:09:32.056 --> 00:09:36.306
무니로 발음한다는 겁니다.

00:09:36.406 --> 00:09:39.566
그래서 의를 이로
발음해주는 거예요.

00:09:39.666 --> 00:09:44.251
보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
음절인지 확인해 보니까 그렇죠.

00:09:44.351 --> 00:09:47.687
자음 ㄴ을 첫소리로
가지고 있는 음절,

00:09:47.787 --> 00:09:49.467
이런 경우에는 니로.

00:09:49.567 --> 00:09:52.513
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음을
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니까

00:09:52.613 --> 00:09:56.507
히망, 이렇게 해주는 거죠.

00:09:56.607 --> 00:10:01.080
굳이 의, 이 발음을 할
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10:01.180 --> 00:10:05.581
그다음에 다만 4를 보면,

00:10:05.681 --> 00:10:14.244
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으는 이로
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.

00:10:14.344 --> 00:10:20.475
표기와 발음이 반드시
일대 일로 일치하는 게

00:10:20.575 --> 00:10:22.422
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.

00:10:22.522 --> 00:10:26.261
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으는 이로

00:10:26.361 --> 00:10:28.780
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을
허용한다고 했으니까

00:10:28.880 --> 00:10:32.928
우리가 다만 4를 이야기할
때 자주 쓰는 예가

00:10:33.028 --> 00:10:37.286
바로 민주주의의 의의죠.

00:10:39.938 --> 00:10:44.175
실제 시험에서 이쪽 발음이
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.

00:10:44.275 --> 00:10:51.739
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를 1번,
2번, 3번, 4번 이렇게 놓고

00:10:51.839 --> 00:10:55.090
각각의 발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
이야기하라고 합니다.

00:10:55.190 --> 00:10:57.989
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
따르면 어떻게 됩니까?

00:10:58.089 --> 00:11:01.429
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
이로도 발음하는 게 허용되니까

00:11:01.529 --> 00:11:09.673
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
의로 발음이 되는데,

00:11:09.773 --> 00:11:14.104
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니까
이거는 이로 발음해도 되겠죠.

00:11:14.204 --> 00:11:17.782
그러니까 의로 발음해도 되고
이로 발음해도 되는 거예요.

00:11:17.882 --> 00:11:19.637
그러면 이거는요?

00:11:19.737 --> 00:11:22.468
이게 조사잖아요, 관형격 조사.

00:11:22.568 --> 00:11:26.430
그러니까 조사 의는 에로
발음함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.

00:11:26.530 --> 00:11:30.136
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
의로 발음되기도 하지만

00:11:30.236 --> 00:11:32.376
에로 발음해도 돼요.

00:11:32.476 --> 00:11:33.971
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?

00:11:34.071 --> 00:11:38.238
지금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가
아니고 단어의 첫음절 의죠.

00:11:38.338 --> 00:11:42.390
그러면 얘는 무조건 의로만
발음돼야 된다는 것이고.

00:11:42.490 --> 00:11:46.079
그다음에 얘는 첫음절 이외의
의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,

00:11:46.179 --> 00:11:50.597
의, 그다음에 이.

00:11:50.697 --> 00:11:52.029
무슨 이야기입니까?

00:11:52.129 --> 00:11:56.794
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지금 다만 4에
나와 있는 내용대로 적용을 하면

00:11:56.894 --> 00:11:59.643
민주주의의 의의, 이거
다양하게 발음하는 거

00:11:59.743 --> 00:12:03.272
쉽게 우리가 잘할 수

있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12:04.689 --> 00:12:07.997
그다음에 다음 항목을
가보도록 하죠.

00:12:08.097 --> 00:12:11.734
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.

00:12:11.834 --> 00:12:19.080
제10항은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
두 개의 자음으로 된 겹받침 가운데

00:12:19.180 --> 00:12:22.613
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으로
시작된 조사나 어미 앞에서

00:12:22.713 --> 00:12:26.096
ㄳ은 ㄱ으로

00:12:26.196 --> 00:12:28.963
ㄵ은 ㄴ으로 발음되고

00:12:29.063 --> 00:12:32.291
ㄼ, ㄽ, ㄾ은 ㄹ로 발음되며

00:12:32.391 --> 00:12:36.529
ㅄ은 ㅂ으로 발음됨을
규정한 것입니다.

00:12:36.629 --> 00:12:38.215
이렇게 되어 있어요.

00:12:38.315 --> 00:12:43.993
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런 이야기죠.

00:12:44.093 --> 00:12:48.959
예를 들어서 ㄳ, 이거
같은 경우는 몫.

00:12:49.059 --> 00:12:53.231
목으로 발음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

00:12:53.331 --> 00:12:56.550
ㄵ은 ㄴ으로 발음된다.

00:12:56.650 --> 00:13:06.997
얹다, 이것도 언즈다
이게 아니고 언따.

00:13:07.097 --> 00:13:10.165
이런 식으로 발음된다는 이야기고.

00:13:10.265 --> 00:13:15.209
그다음에 또 외곯,
이게 좀 어렵죠.

00:13:15.309 --> 00:13:21.169
외골, 이런 식으로
발음된다는 이야기예요.

00:13:21.269 --> 00:13:30.612
또 값, 갑으로 발음되고.

00:13:30.712 --> 00:13:33.243
그런데 이런 것들은
별로 어렵지 않죠.

00:13:33.343 --> 00:13:37.144
어려운 거는 어떤 게
어렵냐면 뒷부분이 어려워요.

00:13:37.244 --> 00:13:42.862
뒤에 보면 밥은 자음
앞에서는 밥으로 발음하고

00:13:42.962 --> 00:13:45.886
넓은, 다음과 같은
경우에는 넙으로 발음한다.

00:13:45.986 --> 00:13:48.408
그래서 그 밑에 있는
뒷부분이 어려운 거예요.

00:13:48.508 --> 00:13:53.081
그래서 밟다, 이런 거 발음할
때 어떻게 많이 써요?

00:13:53.181 --> 00:13:57.352
눈을 발따, 이런 식으로
많이 발음하거든요.

00:13:57.452 --> 00:14:03.000
그래서 발따가 아니고
밥따가 맞습니다.

00:14:03.100 --> 00:14:06.845
장음 표시 들어가고 밥따.

00:14:06.945 --> 00:14:10.944
밥으로 쓰는 게 맞아요,
발따가 아니고.

00:14:11.044 --> 00:14:17.311
그다음에 밥쏘, 밥찌, 밥는, 밥께,
밥꼬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.

00:14:17.411 --> 00:14:21.034
넓 같은 경우에는 널따,
르로 발음되는데.

00:14:21.134 --> 00:14:26.397
여기 넙쭈카다, 넙뚱글다
이것도 보셔야 돼요.

00:14:26.497 --> 00:14:33.809
넓죽하다, 이것도 보면 넙쭈카다.

00:14:33.909 --> 00:14:35.359
널쭉하다가 아니에요.

00:14:35.459 --> 00:14:39.816

ㅂ으로 씁니다, 넙쭈카다.

00:14:39.916 --> 00:14:42.878
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.

00:14:42.978 --> 00:14:55.412
그다음에 넓둥글다도 넙뚱글다.

00:14:55.512 --> 00:14:59.798
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14:59.898 --> 00:15:07.551
그다음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5:07.651 --> 00:15:11.397
제11항도 역시 겹받침에
대한 규정인데요.

00:15:11.497 --> 00:15:15.821
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 앞에서 겹받침
ㄺ, ㄻ, ㄼ이 ㄹ을 탈락시키고

00:15:15.921 --> 00:15:20.997
각각 ㄱ, ㅁ, ㅂ으로
발음함을 규정한 것입니다.

00:15:21.097 --> 00:15:24.979
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면

00:15:25.079 --> 00:15:30.714
ㄺ의 발음을 주의해야
된다고 나와 있는데,

00:15:30.814 --> 00:15:34.143
일단 이런 것들입니다.

00:15:34.243 --> 00:15:40.008
닭, 자음군 단순화 떠오르죠?

00:15:40.108 --> 00:15:42.556
닥이라든지.

00:15:42.656 --> 00:15:46.482
그다음 삶.

00:15:46.582 --> 00:15:48.496
삼.

00:15:48.596 --> 00:15:55.400
그다음에 읊다, 시를
읊다 같은 경우.

00:15:55.500 --> 00:15:57.136
읍따.

00:15:57.236 --> 00:16:05.150
지금 이 이야기가
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

00:16:05.250 --> 00:16:06.664
그런데 또 뒤에 보면,

00:16:06.764 --> 00:16:11.067
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
앞에서 ㄹ로 발음한다고 해서

00:16:11.167 --> 00:16:13.435
이 부분 보세요.

00:16:13.535 --> 00:16:17.303
맑고, 용언의 어간 말음이에요.

00:16:17.403 --> 00:16:19.643
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?

00:16:19.743 --> 00:16:22.996
용언의 어간 말음이 되는 거죠.

00:16:23.096 --> 00:16:28.441
용언의 어간이고 그거의
마지막 음이에요.

00:16:28.541 --> 00:16:30.297
끝 말 자예요.

00:16:30.397 --> 00:16:32.385
그래서 어간 말음.

00:16:32.485 --> 00:16:37.713
이게 ㄹ이고 뒤에 ㄱ이
왔단 말이에요.

00:16:37.813 --> 00:16:40.680
이렇게 되면 이게 막꼬가 아닙니다.

00:16:40.780 --> 00:16:46.124
말꼬, 이렇게 돼버린다.

00:16:46.224 --> 00:16:49.680
그래서 ㄱ 앞에서는
뭐로 발음한다?

00:16:49.780 --> 00:16:55.855
ㄹ로 발음한다는 것을
기억해줘야 된다는 거죠.

00:16:55.955 --> 00:17:00.199
그러면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?

00:17:00.299 --> 00:17:03.785
이거는 ㄹ 뒤에 ㅈ이 왔잖아.

00:17:03.885 --> 00:17:08.202
ㄱ이 아니고 ㅈ이니까
이거는 말찌가 아니고 막찌.

00:17:08.302 --> 00:17:11.571
이렇게 하면 돼요.

00:17:11.671 --> 00:17:15.165
이렇게 하라는 겁니다.

00:17:15.265 --> 00:17:23.777
그다음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7:23.877 --> 00:17:28.917
제13항은 받침을 다음 음절의
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하는

00:17:29.017 --> 00:17:31.865
연음을 뜻하는 것인데,
홑받침의 경우에 해당된다.

00:17:31.965 --> 00:17:34.410
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.

00:17:34.510 --> 00:17:38.425
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.

00:17:38.525 --> 00:17:40.684
예를 하나만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

00:17:40.784 --> 00:17:43.836
이게 지금 홑받침이잖아요, ㅋ.

00:17:43.936 --> 00:17:47.170
그런데 뒤에 지금 뭐가
왔냐면, 이가 왔단 말이에요.

00:17:47.270 --> 00:17:49.697
그래서 홑받침이나 쌍받침이
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

00:17:49.797 --> 00:17:51.538
어미의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.

00:17:51.638 --> 00:17:54.014
부엌이, 라고 했으니까
이가 지금 조사잖아요.

00:17:54.114 --> 00:17:57.634
이게 ㅇ인데 음가가 없는 거죠.

00:17:57.734 --> 00:18:05.813
그래서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된
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18:05.913 --> 00:18:07.387
형식 형태소.

00:18:07.487 --> 00:18:08.861
그러면 어떻게 된다?

00:18:08.961 --> 00:18:12.992
ㅋ이 이쪽으로 연음된다는
겁니다, 이어진다.

00:18:13.092 --> 00:18:14.692
그래서 실제 발음 어떻게 된다?

00:18:14.792 --> 00:18:20.898
이 빈자리 ㅋ이 들어가니까
부어키가 되는 거죠.

00:18:20.998 --> 00:18:23.068
이렇게 쓴다는 거죠.

00:18:23.168 --> 00:18:24.398
이게 바로 13항입니다.

00:18:24.498 --> 00:18:25.445
별로 어렵지 않죠.

00:18:25.545 --> 00:18:28.746
그러니까 연음에 대한
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.

00:18:28.846 --> 00:18:32.590
그다음에 14항.

00:18:32.690 --> 00:18:35.209
13항과 14항을 같이 봐야 되는데

00:18:35.309 --> 00:18:37.249
14항은 겹받침의 경우예요.

00:18:37.349 --> 00:18:38.867
그런데 겹받침의 경우는 좀 달라요.

00:18:38.967 --> 00:18:40.335
그냥 연음이 아닙니다.

00:18:40.435 --> 00:18:42.272
보시면 어떻게 합니까?

00:18:42.372 --> 00:18:47.444
첫째 받침은 그대로 받침의 소리로
발음하되 예컨대 이런 식이죠.

00:18:47.544 --> 00:18:51.037
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
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

00:18:51.137 --> 00:18:53.485
뒤에 있는 것만을 뒤에 음절
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
00:18:53.585 --> 00:18:55.132
이거 많이 틀립니다.

00:18:55.232 --> 00:18:57.202
왜요? 한번 해볼까요?

00:18:57.302 --> 00:19:01.845
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.

00:19:01.945 --> 00:19:03.634
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.

00:19:03.734 --> 00:19:05.203
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합니까?

00:19:05.303 --> 00:19:08.775
오늘 그냥 다기 맛있네,

다기라고 많이 발음해요.

00:19:08.875 --> 00:19:11.209
다기가 아니고 달기입니다.

00:19:11.309 --> 00:19:14.776
앞에 있는 ㄹ을 놔두고 ㄱ만
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,

00:19:14.876 --> 00:19:15.852
겹받침일 때는.

00:19:15.952 --> 00:19:20.410
그래서 발음이 달기,
이런 식으로 발음한다.

00:19:20.510 --> 00:19:22.813
달기 맛있다, 이게 맞는 것이고요.

00:19:22.913 --> 00:19:26.536
그다음에 지금 내가
흙을 가져가야 되겠다.

00:19:26.636 --> 00:19:28.714
이런 식으로 흐글이라고 해요.

00:19:28.814 --> 00:19:30.554
그런데 이거는 흘글이 맞아요.

00:19:30.654 --> 00:19:33.314
ㄹ은 그대로 놔두고
ㄱ만 넘어가는 거예요.

00:19:33.414 --> 00:19:39.792
그래서 발음이 흘글,
이렇게 됩니다.

00:19:39.892 --> 00:19:44.221
이런 것들도 조심해주셔야
되는 부분이고요.

00:19:44.321 --> 00:19:49.369
그다음에 제15항으로
넘어가보도록 합니다.

00:19:49.469 --> 00:19:52.180
이해만 되면 돼요.

00:19:52.280 --> 00:19:55.978
그다음에 15항, 받침 있는
단어와 모음으로 시작된

00:19:56.078 --> 00:19:58.728
실질 형태소와의 결합에서 발음되는
받침소리와 연음에 대한 것입니다.

00:19:58.828 --> 00:20:04.931
이거를 13항과 대비해서
보면 되겠습니다.

00:20:05.031 --> 00:20:12.036

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.

00:20:12.136 --> 00:20:19.094
아래가 뭐예요? 실질
형태소 맞잖아요.

00:20:19.194 --> 00:20:26.208
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가 왔어요.

00:20:26.308 --> 00:20:27.861
형식 형태소가 아니고.

00:20:27.961 --> 00:20:30.375
그럴 때는 얘가 먼저 변해요.

00:20:30.475 --> 00:20:35.262
얘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
인해서 ㄷ으로 변합니다.

00:20:35.362 --> 00:20:37.430
교체가 된단 말이죠.

00:20:37.530 --> 00:20:39.727
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.

00:20:39.827 --> 00:20:41.989
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?

00:20:42.089 --> 00:20:47.655
그다음에 ㄷ이 뒤로 연음이 된다.

00:20:47.755 --> 00:20:50.268
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.

00:20:50.368 --> 00:20:52.180
쉽게 이야기하면 음절의
끝소리 규칙이 한번 되고

00:20:52.280 --> 00:20:54.269
그다음에 ㄷ이 뒤로 연음된다.

00:20:54.369 --> 00:20:56.365
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.
아시겠죠?

00:20:56.465 --> 00:21:00.882
그래서 그 부분을
161쪽에 만화로,

00:21:00.982 --> 00:21:03.359
밑 아래에 대한 내용을 써놨습니다.

00:21:03.459 --> 00:21:09.055
그다음에 마지막으로
살펴볼 주요 규정.

00:21:09.155 --> 00:21:11.383
바로 사이시옷입니다.

00:21:11.483 --> 00:21:14.163
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

다음와 같이 발음한다.

00:21:14.263 --> 00:21:16.002
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.

00:21:16.102 --> 00:21:19.753
1번 ㄱ, ㄷ, ㅂ, ㅅ,
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

00:21:19.853 --> 00:21:23.899
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
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

00:21:23.999 --> 00:21:27.464
사이시옷을 ㄷ으로
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.

00:21:27.564 --> 00:21:32.992
깃발 같은 경우.

00:21:33.092 --> 00:21:38.313
그러니까 1번 같은
경우는 이거 발음할 때

00:21:38.413 --> 00:21:47.326
일단 원칙적으로는 긷빨을 표준
발음으로 적는 게 원칙이잖아요.

00:21:47.426 --> 00:21:50.791
여기에 따르면.

00:21:50.891 --> 00:22:02.600
그런데 실제 발음을 고려해서 기빨도
표준 발음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.

00:22:02.700 --> 00:22:04.485
그래서 ㄷ으로 발음하는
것도 허용한다.

00:22:04.585 --> 00:22:06.337
이게 허용이고 이게 원칙.

00:22:06.437 --> 00:22:11.013
그다음에 2번, 사이시옷 뒤에 ㄴ, ㅁ이
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.

00:22:11.113 --> 00:22:14.150
이거는 콧날 같은 경우.

00:22:14.250 --> 00:22:21.117
사이시옷 뒤에 지금
ㄴ이 결합됐죠.

00:22:21.217 --> 00:22:24.591
이럴 때는 ㄴ으로 발음해준다.

00:22:24.691 --> 00:22:33.114
그래서 발음이 최종적으로는
콘날이 되는 거죠.

00:22:33.214 --> 00:22:38.821

물론 그 앞에 ㄷ으로
바뀌는 그 과정이 있지만.

00:22:38.921 --> 00:22:45.597
그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사이시옷
뒤에 이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

00:22:45.697 --> 00:22:47.040
ㄴㄴ으로 발음한다.

00:22:47.140 --> 00:22:49.648
그래서 이거는 원래 사이시옷 뒤에

00:22:49.748 --> 00:22:52.907
이 또는 ㅑ, ㅕ, ㅛ, ㅠ가 결합되는
경우에는 ㄴ이 첨가되기 때문에

00:22:53.007 --> 00:22:54.763
사이시옷은 자연스럽게
ㄴ으로 발음이 되겠죠.

00:22:54.863 --> 00:22:56.715
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.

00:22:56.815 --> 00:22:59.804
그래서 이렇게 발음에
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

00:22:59.904 --> 00:23:02.710
표준 발음이라는 것은 계속
바뀌는 것이기 때문에

00:23:02.810 --> 00:23:06.782
언중들이 사용하는 것에
대해서 자꾸 모니터링 하고

00:23:06.882 --> 00:23:08.820
그다음에 그거를 반영하는
경우가 많기 때문에

00:23:08.920 --> 00:23:12.441
일단 이거는 현 시점에서
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.

00:23:12.541 --> 00:23:15.461
그러면 우리 친구들 문법
화룡점정 퀴즈 풀어봐야죠.

00:23:15.561 --> 00:23:18.029
문법 화룡점정 O, X 퀴즈!

00:23:18.129 --> 00:23:22.344
그래서 두 문제 정답 수강후기에
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

00:23:22.444 --> 00:23:27.653
오늘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
공부하느라, 잘 따라오느라

00:23:27.753 --> 00:23:30.195
대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

00:23:30.295 --> 00:23:32.568
오늘 공부한 부분
중에서 궁금한 점,

00:23:32.668 --> 00:23:34.606
특히 복습하실 거잖아요.

00:23:34.706 --> 00:23:37.153
생강 국어 문법
읽으면서 복습할 건데

00:23:37.253 --> 00:23:40.428
복습하다가 궁금한 점
있으면 Q&A 게시판에

00:23:40.528 --> 00:23:43.169
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00:23:43.269 --> 00:23:45.218
동준 샘이 기다리고 있을게요.

00:23:45.318 --> 00:23:49.362
그러면 마무리 멘트하고 이번
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00:23:49.462 --> 00:23:54.972
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.